



씨실과 날실

1994년 겨울,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대오일뱅크 제2공장 건설을 위해 거대한 건설 장비와 수많은 설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개연성 없어 보이던 설비 자재가 씨실과 날실이 되어 서로 어우러져 하나하나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새내기인 제게 진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의 크기만큼 책을 통해 배운 업무는 현실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프로젝트 공정의 설계와 구매, 공사와 시운전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조직 간 갈등뿐 아니라, 풀어야 할 난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선배와 동료는 업무 시간을 마치고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기꺼이 함께 고민해주고 속 깊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선배와 동료 덕분에 천문학적 규모의 프로젝트 완성이라는 멋진 성과를 내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끈끈한 동료애와 신뢰가 회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화학 공장을 운영하던 듀폰 설립자는 공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공장 한가운데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형 폭발 사고(1818년)가 발생해 가족까지 다쳤는데도,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장 중심에 또다시 집을 세워 안전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많은 직원이 공장 안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한 회사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 직원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의 스펙터클한 자연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눈에 직접 담아올 만큼 세상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기술의 세계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하다 보니 세대 간, 개인 간 경험차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다채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MZ세대, X세대라는 용어로 세대를 나누어 서로가 이질적 존재임을 재삼 확인하고 상대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 사랑이라는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듯, 직장 내에서 지킬 핵심 가치 또한 크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선배나 동료는 공동 목표를 이루려고 솔선수범하고,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다소 느린 동료라도 믿음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각자의 다름은 더 이상 갈등 요소가 아니라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같은 조직원 간 신뢰와 동료애는 조직의 근간으로 모래알 같은 개인을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결속시키는 물과 시멘트에 견줄 만하겠습니다.

지금껏 저는 이런 물과 시멘트가 되고자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글 김창호(현대케미칼 EHS담당 상무)

